

제5대 후반기 남구의회 원구성

의장 이희철·부의장 김동환

운영위원장 이명규 의원

총무위원장 송순임 의원

주민복지도시위원장 공명현 의원

제5대 남구의회는 지난달 27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70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열고 제5대 남구의회 후반기를 이끌어갈 의장단 선거를 가졌다.

남구의회는 이날 의장에 이희철, 부의장에 김동환 의원을 각각 선출하고, 30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상임위원장 선거를 가졌다.

선거 결과 운영위원장에 이명규 의원이, 총무위원장에 송순임 의원, 주민복지도시위원장에 공명현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제171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별 간사로 운영위원회 오은택 의원과 총무위원회 김광일 의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김영순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다.

14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이희철 의장



김동환 부의장

이명규
운영위원장송순임
총무위원장공명현
주민복지도시위원장

1차 회의에서는 최말영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진남일

은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임기는 2009년 제1차 정례회 직전 임시회까지다.

상임위원회별 소속 의원

- 운영위원회 : 오은택, 공명현, 박영근, 최말영, 진남일, 김영순 의원
- 총무위원회 : 김광일, 차경양, 김동환, 박영근, 박두춘, 진남일 의원
- 주민복지도시위원회 : 김영순, 김춘열, 이명규, 최말영, 손애휘, 오은택 의원

독도 수호 결의안 채택

일본정부 자국 영토 억지주장 철회 촉구

남구의회 제172회 임시회

남구의회(의장 이희철)은 지난 21일 오후 제172회 임시회를 열고 일본정부의 어리석은 망상을 준엄하게 규탄하는 독도수호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남구의회 소속 의원들은 일본 정부가 최근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것을 기술하도록 지침을 마련, 대대적인 언론 홍보를 통해 국제적으로 자국의 영토임을 억지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우리정부가 앞으로 독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대책을 수립, 시행 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결의문에는 ▲독도는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우리 땅이며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 국제법상으로나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의 부속도서임을 재천명한다 ▲일본 정부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를 중가 중단하고 새 학습 지도요령 해설서 독도명기와 관련해 이를 즉각 철회하라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남구의회는 지난 21일 제172회 임시회를 열고 일본정부의 망상을 규탄하는 독도수호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 영토임을 인정하고 더 이상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망언과 망발을 일삼지 말라 ▲일본정부는 독도 점락 야욕을 버리고 대한민국 국민과 30만 남구 주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우리 정부는 독도를 영토 분쟁화시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일

본 정부의 저급한 수작에 대해 단호한 대응책을 마련해 재발 방지와 독도를 수호할 것을 촉구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남구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관계기관과 남구의회와 국제교류를 맺고 있는 일본 이즈모시 의회에 발송할 예정이다.

■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예결특위 안전심사

남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말영)는 지난14일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의 2건의 안전에 대해 종합심사를 벌였다.



장애인 복지정책 우수의원 선정

박두춘의원은 지난 11일 (사)부산장애인인권포럼 주최로 열린 시상식에서 장애인 인권복지정책과 관련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 5분 자유발언

오륙도축제 개최 시기 조정을

오은택 구의원

오은택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제171회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륙도축제의 개최시기를 조정해 축제의 효과를 최대화하고 남구를 빛낸 인물을 대상으로 오륙도상을 제정하자”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오륙도축제 개최 시기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10월5일 부산 시민의 날은 전후해 열리는 국제관람식 행사와 연계해 열자”고 제안했다.

오 의원은 “이 행사는 미국 등 40여 나라와 항공모함을 비롯해 70여

척의 함정이 옹호를 찾을 것으로 예정되고 수만명의 승무원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돼 우리 남구의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의원은 또 “장기적으로 축제의 시기를 5월5일 어린이 날을 전후해 열어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오 의원은 “남구를 빛낸 인물을 대상으로 오륙도상을 제정해 홍보대사로 위촉하자”고 말했다.



의회 방청 환영합니다

의회 방청을 신청하시면 회의 진행과정을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많은 방청 있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남구의회 사무국 ☎ 607-652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청시기 : 남구의회 회기중(정례회,임시회)
- 방청장소 : 본회의장
- 방청대상 : 누구나(어린이는 보호자동반 필수)
- 방청방법 : 방청당일 오셔서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고 방청권을 교부받아 방청실에서 방청합니다.

■ 인터뷰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

남구의회 제4대 후반기 이희철 신임 의장

“주민감동과 열린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구민의 대변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살기 좋은 남구를 만드는 데 동료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철 구의원이 지난달 27일 열린 제170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5대 후반기 의장에 선출됐다.

이희철 의장은 “문헌금융단지·화물차고지 조성과 대학로 조성사업 등 굵직굵직한 지역현안 해결과 소규모 주민생활불편 사항을 해소하는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희철 의장과의 일문일답.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소감은.

▲의회와 남구의 발전을 위해

성원과 협조를 보내준선 구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위해 열심히 연구하고 탐 출하며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신뢰와 사랑을 받는 진실한 일꾼이 되

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신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의정계획과 역점시책이 있다면.

▲남구의회와 「주민감동·열린의정」 의정목표에 맞추어 의회는 구민의 눈과 입이 되어 구민의 대변자로서 살기 좋은 남구를 만드는 데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구민과 함께하는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연구 노력하는 의회 분위기 조성,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의원 연수 등으로 의원 개개인의 능력을 신분 발휘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분위기를 만들어가겠다.

—남구의 현안이 많은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의회차원의 노력은.

▲ 문헌금융단지 조성, 화물 차고지 조성, 재개발·재건축사업, 경성대·부경대 일대 대학로 조성 등 크고 작은 현안에 대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와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들이 함께 당면 현



안사항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중간자 역할을 착실히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동소규모숙원 사업비의 최대한 확보로 구민의 생활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의정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은.

▲전반기 의회를 이끈 김춘열 의장님으로부터도 조언을 구하고 “화합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의 조율하는 역할을 하겠다.

또한 동료 의원들이 지난 2년간의 경험과 정보를 바탕으로 정의

성과 자율성을 충분히 발휘하여 지방행정의 효율을 증대시키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

—주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주민의 대표로서 겸허한 자세를 가지고 주민과 더불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의정활동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존중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배격하여 공익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 지방의회가 주민의 신뢰를 얻어 지방정치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제5대 남구의회 후반기 힘찬 출발

2007회계연도 결산안 등 처리

남구의회 제171회 정례회

남구의회(의장 이희철)는 제171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시작으로 제5대 후반기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지난 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열린 제171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첫째날인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공무원으로부터 200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들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마지막 날인 7월 16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처리했다.

제171회 정례회에서 처리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원안가결) =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2007회계연도 결산서를 동방시행령 제84조에 의한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결산검사를 필한 후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 승인을 요구하는 것임.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원안가결) =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승인을 요구하는 것임.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원안가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기금운용의 투명성 유지와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와 함께,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및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마지막 날인 7월 16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처리했다.

제171회 정례회에서 처리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원안가결) =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2009년도 예산편성에 바란다」창구 개설

내년도 우리구의 예산편성에 앞서 구민들의 다양하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예산관련 의견수렴 창구를 마련하였습니다.

- 접수기간 : 2008. 8. 1. ~ 8. 31.
- 접수방법 : 남구홈페이지(www.bsnamgu.go.kr) 접속 후 「2009년도 예산편성에 바란다」메너방 클릭
- 참여대상 : 남구 주민 누구나
- 신청내용 :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한 예산편성, 예산절감 방안
- 신청서식

[예 시]		
①사회복지향상	②도로·교통시설	③지역경제활성화
④문화·체육·관광	⑤패적한 환경조성	⑥도시개발촉진
⑦건설·주택정책	⑧재난관리·소방	⑨일반행정·기타
▶ 위의 예시중 내년에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할 분야와 이유를 간략 하게 적어 주십시오.		
분야 : <input type="text"/>		
▶ 반영되어야 할 구체적인 사업이나 내용, 기타(세입 증대 및 예산절감 방안 등) 의견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제목 : <input type="text"/>		

□ 처리결과 통보 : 2008년 12월 남구의회 의결 후 개별 통보

□ 기타 사항 문의 : 남구청 기획감사실 예산담당자 ☎607-4022(김서현)

용호5지구 선보상 검토하라

김선길 시의원 부산도시공사에 촉구



김선길 시의원이 부산도시공사 200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회의에서 용호5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김선길 시의원은 지난 21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위원회의 부산도시공사 200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회의에서 용호5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용호5지구는 건물노후로 전기누전 등에 의한 화재발생의 위험과 비열 경우 누수로 인한 습기와 많은 모기의 서식 등 열악한 생활환경 속에 방치돼 있다”며 “해당지역 주민들의 주거복지 향상 차원에서 기자회견 국민주책기금을 활용하여 해당지역주민들의 이주를 위한 보상부터 조속히 추진하라”고 오홍석 사장에게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오홍석 사장은 “용호4지구와 연계, 사업변경 등을 통해 용호5지구 주민들에 대한 선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검토,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